



2012 **2**

#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제326호

발행:김성규 / 총무:김용인 010-6505-3704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wing44@paran.com



취임사

두번째  
이 자리에... ]

太江 김성규  
본부동창회장



**동문**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 두루 평안하신지 먼저 문안 올립니다.

85년도에 이어 27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지만 모든 면에서 모자라는 것 같아 걱정부터 앞섭니다.

무슨 놈의 세월이 이다지도 촛살같이 빨리 가던지 벌써 나이 70이라는 게 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어찌 하리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으니 자연의 섭리에 순응할 수밖에요.

돌이켜 회상해 보니 여러분과 함께 동문수학을 하던 때가 가마득하고, 졸업을 하고 교문을 나서던 때가 엇그제 같지만 그 세월 또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졸업50주년 기념행사가 3월 25일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보니 반백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50주년행사를 위해 배종길 행사추진위원장을 위시하여 서울과 부산, 그리고 본부 추진위원께서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알찬 행사를 준비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동문 여러분의 성의 있는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 행사를 원만하게 치러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불편하고 가슴 한 귀퉁이에 불만스런 점이 쌓이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눈감아주시고 아량으로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무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고, 동창회에 나온다는 것은 정신건강의 지름길이요, 젊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일 년 동안 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전임 이종섭 회장과 또 다년간 힘든 총무 직을 수행해 주신 구해룡 전임총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문여러분,

다시 한 번 동문 여러분의 큰 성원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빌며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

2012년도 본부동창회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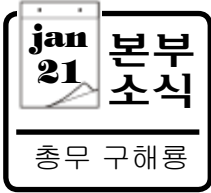
회 장	김 성 규	010-5577-6636
부 회 장	우 용 태	010-9301-2223
총 무	김 용 인	010-6505-3704
감 사	이 종 섭	010-5687-8816
	조 정 웅	011-9510-3150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2년 1월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400,000	구해룡 이종섭 각15만원	회보	210,000	인쇄(봉투포함)
		송인창 10만원		80,320	발송(연하엽서7매)
협찬	200,000	김기정 혼가	월례회	750,000	급돌위 생상컵
	100,290	미국 김중호 미화100불	결산보고	50,000	식대2만, 제작3만원
모금합	219,200	동창회사무실	기타	70,000	이황구 서예표구대
			수수료	5,000	김중호 외환은행
			정수기	19,900	동창회사무실
			유선비	6,600	
			수당	150,000	총무
			관리비	192700	
수입계	919,490		지출계	1,534,520	
전기이월	679,879		차기이월	64,849	
합계	1,599,369		합계	1,599,369	

원고접수 E-mail : wing44@paran.com



2012년 임진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다. 흑룡의 해라고 해서 특별하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띠 동물을 색깔별로 나누고 그 색깔에 따라 길흉화복을 따지는 데는 민속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임진년 3월 25일은 우리네 친구들이 졸업을 한지 반세기만에 맞이하는 뜻 깊고 보람된 졸업50주년기념행사를 치르는 날이다.

용은 봄을 상징하고 비를 관장해 부귀와 풍요를 뜻하는 길조와 수호신으로 숭배됐다. 임진년 벽두에 명절설연휴를 보낸 지난 25일(수) 돼지삼겹살의 명가인 ‘곱돌위 생삼겹’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월례회를 가졌다. 관심 있고 열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열기가 고조된 분위기에서 이종섭 회장의 인사말은 ‘오직 여러 동창들의 감사와 존경과 신뢰로 모든 것이 새롭고 고마워 마음 가득히 감사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했다. 배종길 추진위원장은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정열을 쏟아 붓고 올인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여러 각도로 커팅 될수록 더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듯이 졸업50주년행사 준비에 아름답게 커팅 되는 대신 우리네 친구들의 애환과 사연의 삶, 인생의 갖가지 문제로 거칠게 커팅 되었기에 절박하고 비장한 심사가 되어 가슴이 벅차올라 주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감히 총무는 느낀다. 본부를 비롯한 서울과 부산에서 격려와 위로의 인사말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시기상조이니 세상인심과는 천양지차가 아닐까?

어쨌든 총무로서 잠 못 이루며 걱정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심장이 멎은 듯 숨을 쉴 수 없고, 이종섭 회장과 함께 뒤엉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야릇한 희열을 느끼곤 했다. 우리네 동창친구들의 도타운 우정과 열성 그리고 관심 속에서 잘 에둘러 건사해주었기에 대과 없이 책무와 소임을 다하였다고 감히 말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一切唯心造」불경의 이 말은 不變不動의 진리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렸다는 華嚴經의 명언은 암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적한 금언이다. 부연해서 폴신(Paul Shin; 신호범) 말을 곁들여보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해주어서 고맙습니다(Thank you for thanking me)!!’ 이 한마디를 남길 수 있도록…….

참석자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방태 김선규 김성규 김순택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채열 박소학 배복기 배종길 변재국 변재웅 변종일 손기홍 송인창 신창한 여경현 우용태 이무일 이아인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제갈선광 조정웅 지해경 최광수 황한균 이상40명

**협찬 감사합니다.**  
 케니디 김종호 동문께서 미화 100불과 함께 동문들의 인부를 물어왔습니다.



♣ 강동균 동문

내외법부법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동문께서 은퇴하여 건강관리에 일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황구 동문

부산에서 연묵서화회 회장직에 있는 동문이 김기현 동문 편으로 '山華水鳥' 揮毫를 보내와 표구하여 동창회 사무실에 거치하였으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채 은사님

은사님의 주소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건영2차아파트 111동 302호  
010-4858-8837

♣ 황희룡 은사님

은사님의 주소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삼익아파트 2동 402호  
055-246-7884  
011-249-3553

♣ 김승곤 은사님

은사님의 주소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대동청솔아파트 106동 1202호  
055-261-8872  
010-9396-5130

♣ 박수용 은사님

은사님의 주소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59-6번지  
055-255-8869  
011-552-5785

♣ 양재인 은사님

은사님의 주소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41-12  
055-293-6463

캐나다 김종호 동문과 미국의 박상태 동문이  
구해릉 총무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 월보에 게재하겠습니다.

졸업50주년 참가비 다음구좌로 접수합니다.

금액 18만원

계좌번호 : 김용인(우리은행) 1002-844-779524

東洋名句

愚者闇於成事, 智者見於未萌

우자암어성사, 지자견어미맹 (전국책)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다 되어도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징조 전에 벌써 안다.

# 졸업50주년행사 추진현황

배종길

## 1.

### 마산(65명)

강동균	강수성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동열	김명진
김문박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철	김순택	김용인	김정수
김종호	김준형	김채열	김태욱	박기일	박소학	박영환	박종근	배복기
배종길	변재국	변중일	손기홍	송인창	신대순	신용운	여경현	우용태
이대우	이무일	이복렬	이상호	이아인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이진부
임향훈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종필	정창봉	제갈선광	조규철	
조남규	조병용	조정웅	조종석	주종철	지해경	최건일	최광수	허순호
황의신	황한균	황희생						

### 서울(44명)

권영집	김대식	김기철	김덕조	김복남	김영웅	김우철	김종화	김창환
김태조	김학영	문동영	박금준	박광지	박구흠	박박중	박용시	박일곤
방학기	서종성	성재삼	안병근	안병상	유찬중	이고명	이상환	이석우
이영우	이홍규	임홍무	전승치	제정택	조용석	조재호	조철호	주영국
주유삼	최윤도	하무정	하방근	허양도	허호	홍창우	황일웅	

### 부산(25명)

강신평	권기욱	김성광	김준태	김지남	김효석	나길보	남원일	류휘국
박영섭	박용우	박진형	박해량	박형식	송길영	윤성업	이강복	이의승
이황구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천성태	최진화	황선치		

### 기타(8명)

곽호남 김박 김방안 박배훈 박장규 윤승재 최정봉 최충정

- ※ 1월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참석자가 142명으로 확정되었으나 해외동문이 2~3명 참석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한 명도 참석의사를 밝힌 동문이 없어 아쉽습니다.
- ※ 서울은 44명 예약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되었고, 부산과 마산은 예약좌석이 20여개가 남아있으니 2월25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 1월 부산모임에 격려차 참석한 추진위원장이 부산동문들의 이번 행사참여가 기대에 못 미쳐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데에 대해 사과드리며 佛家에서는 相(생색, 우쭐대는 마음)을 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 것을 제일로 강조하고 있는데 수행이 부족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원고접수 E-mail : wing44@paran.com



말이지……. 하여간 고마운 친구를 만나 나들이 길이 한결 가볍다.

우선 사성암을 잠깐 소개 하고 떠나보자. 구례10경중의 하나인 오산은 사성암을 중심으로 풍월대, 망풍대, 배석대, 낙조대, 신선대등 12비경을 자랑하고 장엄한 지리산과 섬진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오산을 오르지 않으면 후회하고 다시가지 않으면 다시 후회하는 곳이 사성암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사성암의 원래 이름은 오산암이었는데 원효, 의상, 도선, 진각 4고승이 수도 했다고 하여 사성암(四聖庵)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특히 사성암은 여수 향일암,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 기도처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추노’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더 유명한 곳이라 하니 어서 서둘러야겠다.

네비를 따라 구례읍에서 섬진강을 건너 죽연마을로 들면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과 등산로 안내판이 서서 기다린다. 이곳이 들머리이니 여기에 주차를 하고 시멘트포장길로 오르면 감나무들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해 준다. 초입의 시멘트길이 끝나면 호젓한 숲길이 시작되지만 경사는 여간 매운맛이 아니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아 숨길이 턱에 닿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된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젯밤에 용을 쓰지 말았어야 할 것을……. 그놈의 야동 때문에…….

재미는 가운데 다리가 보고 옆다리만 썩고생을 시킨다 생각하니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같은 다리라도 자리를 잘 잡아야 호강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터벅터벅 지 할일 다 하는 양다리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더라. 켜켜이 쌓여있는 돌무더기를 지나면 시원하게 펼쳐진 섬진강이 발아래에서 배웅을 해주니 미안한 마음도 한 순간이다. 팔각정을 지나 사성암으로 오르는 포장도로를 만나 30m쯤 오르면 왼쪽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보인다. 쪽 더 오르면 정면에 엄청 큰 바위를 등지고 약사정이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잡았다. 돌계단을 올라보면 약사정 유리관 뒤편에 마애약사여래불이 선명하다. 이것은 원효스님이 선정에 들어 손톱으로 그렸다는 사성암의 불가사의한 전설이 자랑이다. 약25m의 기암절벽에 음각으로 새겼으며 왼손에는 애민중생을 위해 약사발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나 마애약사여래불님 얼굴은 좀 그렇더라.

약사정 밑으로는 지장전, 산신각, 도선굴, 소원바위, 좌선대, 귀목나무가 줄줄이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입구에서 약수로 목을 적시고 마주보이는 돌계단을 오르면 수령이 800년이나 된 귀목나무가 우람한 몸체로 팔을 벌려 맞이하고 다시 또 계단을 오르면 소원바위가 있는데 청동조각에는 뗏목을 탄 사공이 부처님 앞을 지난다. 사연인즉 뗏목을 팔러 섬진강을 따라 하동으로 내려간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숨을 거둔 남편의 애절한 전설이 깃들여 있어 소원바위라 한단다.(다음호에 이어짐)



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나를 산꾼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쩌다 간혹 나다니는 곳마다 들레길이나 나들이 길만 찾고 앉았으니 산꾼이란 이름이 무색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체면유지라도 할 겸 오늘은 큰맘 먹고 전남 구례에 있는 오산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구례 오산 (1)



장정치

사실은 오산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TV를 켜는 순간 사성암이라는 절경이 눈에 확 들어오더니 이내 끝이 나고 만다. 아쉽게 끝나 저기가 어딘지 궁금증만 키웠는데 얼핏 사성암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인터넷을 구걸하여 검색을 해보니 구례 오산 자락에 사성암이 생생히 살아 있는 게 아닌가.




웁다구나 저런 절경을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친구 중에 큰 사찰이든 작은 암자든 두루 섭렵을 한 황동철 친구에게 좋은 곳을 발견했다고 자랑스럽게 전화를 했더니 벌써 3번을 다녀왔다고 하지 않은가. 산꾼도 아닌 친구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다녀왔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야 알고서 법석을 떨었으니 역시 내가 산꾼이 아님이 또 한 번 밝혀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라 흥내라도 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구례장날이 3일과 8일 이라기에 촌장 구경도 할 겸 토요일인 18일 일을 마치고 집사람과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 위해 식당에 들렀는데 우연찮게도 김한경 친구에게 점심대접을 받게 되어 황송하기 짝이 없었다. 오늘의 운세에 귀인을 만난다는 통보도 없었는데

7쪽에 이어짐 -

### 2012년 2월 월례회 안내

<b>월례회</b> 일시 : 21일(화) 오후 6시 장소 : 기와집(243-3583) 동성동 국민은행 뒷골목	 <b>feb 21</b>	<b>부인회</b> 일시 : 21일(화) 12시 30분 장소 : 황토추어탕(246-4088) 대우백화점 중문 맞은편	
---	--	---	---

### 2012년 3월 월례회 안내

<b>은사님 초청만찬</b> 일시 : 9일(금) 오후 5시~7시까지 장소 : 사보이호텔 4층 다이아몬드룸 은사님 초청만찬 후 19:00부터는 315회관에서 김용실 추모공연 관람으로 3월 월례회를 대신함	 <b>mar 9</b>	<b>부인회</b> 일시 : 21일(수) 12시 장소 : 3월회보 참조바람	 <b>mar 21</b>	
---	---	---	--	---